



2018년 4월 11일
emerics@kiep.go.kr

제1차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 성과 및 의의



©REUTERS

- 2018년 3월 17~18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제1차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는 2016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호주 정상회의에서 호주 말콤 턴블 총리가 제안하여 추진된 것으로, 최초로 호주에서 개최된 점이 이례적임.¹⁾
 - 비즈니스 써밋, CEO포럼, 중소기업 컨퍼런스, 테러방지 컨퍼런스 등도 함께 개최되었고, 양측은 정상회의 개최 주간을 ‘아세안-호주 주간(ASEAN-Australia Week)’으로 지정, 일주일 간 학술,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표1. 아세안-호주 관계 발전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74년	대화상대국 관계 체결(호주는 아세안의 첫 번째 대화상대국)
2003년	호주-싱가포르 FTA 발효
2005년	호주-태국 FTA 발효
2010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발효
2013년	주아세안호주대표부 설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주-말레이시아 FTA 발효
2014년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체결, 격년 정상회의 개최 합의
2016년	아세안-호주 정상회의 개최(라오스 비엔티안)
2018년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 개최(호주 시드니)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dfat.gov.au>).

- 아세안과 호주는 이번 회의의 성과로 지역 안보, 미래 번영, 인적교류를 3대 축으로 하는 ‘시드니선언’을 채택,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표 2 참고).
 - 지역 안보 차원에서 양측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와 관련 군사화 반대,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안보위협을 견제함.

1) 사우디에는 마흐람(mahram)이라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있어 결혼, 여행, 취업, 수술 등에 기혼여성은 남편이나 아들, 미혼 여성은 남자 형제 및 부모의 동의 및 동행이 있어야 함.

- 미래 번영 관련하여 아세안과 호주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규범에 근거한 다자통상시스템을 강조하였고,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의식한 조치로 판단됨.
- 호주는 아세안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린 인프라,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데이터분석, 교통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3,000만 호주 달러(약 2,3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함.
- 호주와 아세안은 차세대 지도자 교류에 방점을 두고 인적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표2. ‘시드니선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 안보	·국제테러방지협력 MoU 체결 ·북한 관련: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촉구 -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의 즉각, 완전 준수 촉구 모든 유엔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 강조 ·남중국해 군사화 반대,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조
미래 번영	·교역 및 투자 확대, 보호무역주의 지양 ·규범에 근거한 다자통상시스템 강조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력 강화 ·양질의, 지속가능한, 투명한 인프라 개발: 스마트·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지원 확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실행 지원 ·민간부문 협력 확대, 중소기업(MSME) 참여 확대 ·RCEP의 조속한 타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를 통한 아세안의 개발격차 축소 지원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인적교류	·차세대지도자 중심 인적교류 확대 ·평화, 조화, 문화이해, 법규 등 공유가치 확산 ·양성평등, 인권보호, 재난관리, 기후변화대응, 이주노동자 보호 관련 협력 확대

자료: Joint Statement of the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The Sydney Declaration.

- 이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미국과 중국 위주의 협력노선을 다변화하고 아세안과의 주변국 외교를 통해 역내 번영 및 평화를 모색하려는 호주의 시도로 평가됨.
-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등 요인에 따라 위기의식이 고조됨.
- 호주 입장에서 아세안은 일본,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은 2대 교역파트너로 부상했고, 아세안의 안보는 인접국인 호주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²⁾
- 닷케이아시아리뷰는 이번 회의 개최의 주요 성과가 호주 외교에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상징성’에 있다고 평가함. **EMERiCs**

2) 2016년 기준 아세안은 호주의 2대 교역대상국(비중 13.1%)임(UN Comtrade).

참고자료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 Oxford Analytica, Nikkei Asian Review 등

(작성: 신민금 전문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